



모든 일에 대해서 서두르는 마음 없이 그냥 그대로 대처하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체험을 해 나가시다 보시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도 만반의 준비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을 볼 때 오관을 통해서 오신통(五神通)을 지금 하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100프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익의 법만 활용을 하지 유익의 법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을 욕심 없이,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해야 만이 된다. 즉 습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얘깁니다. 모든 걸, 선한 일을 했어도 내가 한 일이 아니요,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두루 편하기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했다면 악한 일이 아닙니다. 거저도 남을 위해서 거저를 했다면 잠시만 거저로 한 거지 그건 거저가 아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가 잘 생각한다면 남을 이익하게 할 수 있고 또 나를, 나의 중생에게도 이익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타인의 육체나 내 육체나 똑같은 중생이지만 말합니다. 자기 중생을 자기가 이익하게 만들 수 있어야 남을 이익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다 이겁니다. 잘 생각해야 할 점은 깨달아 야만 한다는 거, 그거를 마음으로 규정지어 놓고선 '얼마쯤이나 가야 될 것인지?' 그러지 마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체험을 해 봐 가면서 탁탁 밀고 나가 보시라 이겁니다. 의심을 하지 말고, 그렇게 탁탁 밀고 나가다 보면 어떤 거는 자기에게 감축이 왔던 말입니다. 그 자리에 감음이 와서 느꼈던 말입니다. 점점 점점 점점 아주 굳어지는 겁니다. 굳어지는 반면에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밀치고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꿈을 꾸어 보셨지요. 우리가 살면, 좋은 집에 살면서 즐거운 것도 순간 돌아 가고,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면서 즐겁게 논 것도 순간적입니다. 그렇게 즐거웠는데 그만 돌아서면 순간 허전하고 허황한 게 말할 수 없죠. 또 좋은 집에서 잘사는 것도 금방 망해서 돌아갔을 땐 그 허전함이 말할 수도 없고요. 꿈에서 참 좋은 데 가서 즐겁게 놀고 즐겁게 살고 하는데도 그게 꿈을 깨고 나면 그렇게 허황될 수가 없죠. 목을 눌러서 죽이려고

하는데 꿈을 깬다. 야, 꿈이기에 망정이지 이거 생시 같으면 죽을 뻔했다고 할 겁니다. 이게 모두가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꿈도 생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꿈이 생시요, 생시가 꿈이듯이 우리가 허황되지 않은 진실을 알아서 그대로 법을 행하는 것이 부처이자 법신이자 보신(報身)이자 화신(化身)입니다. 용왕도 거기 들어 있고 모두가 다 거기 들어 있는데 왜 그 능력을 내지 못합니까? 그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공한 것입니다. 공했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지 공하지 못했다면 능력을 그렇게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부처 될 가능성도 없고요. 그래서 '집승들이 사람을 거치지 않는다면 부처가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참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말입니다. 역시 부처는 말이 없는 것이 부처입니다. 우리가 또 설법을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고 듣는다고 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즉 교법이지요. 그건 유익의 법이지요. 그리고 말없이

이 걸레를 빨아서 탁 닦는 것도, 말없이 걸어가는 것도, 말없이 행하는 것도 모두가 부처가 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말을 하는 것도, 말을 안 하고 하는 것도 그것이 둘입니까? 누가 했습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돌아가는데, 이걸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은 지금 잘 생각해 보시란 뜻입니다. 여러 가지로 자꾸 변해서 돌아가면서 행하는 이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해 가면서 일부터 지어서 하기 보다는 생활 속에서 그냥 문득문득 다가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다. 이걸 장난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실생활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할 때 한번 해 보는 거, 하나하나 해 보다 보면 거기에서 완벽하게 자기에게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이 생겨요. 그랬을 때 모든 것을 자신 있게 해 나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문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사회 정치적으로나 모든 것을 볼 때 과학이 철학이고 철학이 과학이고 과학이 문학이고 이것이 둘이 아니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물질과학으로서 우리의 다섯 가지 능력만 해도 이 도리를 체험해서 아신다면, 우리나라에 급작스럽게 미사일이 건너와서 폭발될 처지라 하더라도 '여기는 안 돼! 못 와!' 하고 못 박으면 못 오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자꾸 체험을 하다 보면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오게 되고 안으로 굴러게 됩니다. 이게 참선입니다. 안으로 굴러게 되고 자꾸 돌아가다 보면 느낌으로 무슨 소리를 들어도 '아, 이걸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됐을 때에는 '여기는 안 돼! 못 와!' 하면 미사일이라도 그건 못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5년 후에 이렇게 된다 하고 예언을 해 놓은 것을 들었는데 '그렇게 해선 안 돼! 5년 있다가 하면 이게 될 법한 일인가!' 이렇게 해 놓으면 5년 있다가 그 말이 한 데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는 소인이라고 한 게 그런 데서 오는 거다 이겁니다. 이런 자신이 자신을 발견해서 자유스럽게 그냥 자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을 한 걸 지워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는 어저께도 없고 내일도 없이 하루살이로 사느니라.' 왜?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전달돼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지요. 내가 꿈에 얘기도 많이 했고, 바닷물이 흘러 들어오는가 하면 흘러나가고, 흘러나 가서 다시 돌아서 또 흘러 들어오고 이러는데 두드러지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사람 사는 마음으로써 전달되는 한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음으로서 우리가 일을 행해 나갈 때

그림 · 최추현



30면으로 계속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8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학생)

기본과정 (37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성,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5년 3월 中
- ◆개강일시 : 2015년 3월 中.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 ▶ 개강일시 : 2015년 3월 中 (매주 월) ◀

※ 본원은 초중급 교육과정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